

미국서 '충성도 최고' 팬덤은 BTS '아미'

미국에서 충성도가 가장 높은 팬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지지하는 '아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미국 여행 정보 업체 '업그레이디드포인트즈'(UPGRADEPOINTS)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팬은 충성도 100점 만점에 88.4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스타 팬덤 가운데 1위에 올랐다.



▲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서울 공연에서 관객들이 응원도구를 이용 'BTS ARMY' 모양을 만든 모습.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업그레이디드포인트즈는 미국인 3천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 가수들 보기 위해 얼마나 멀리 여행할 의향이 있는가 ● 가수들 보기 위해 얼마나 소비할 의향이 있는가 ●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자 저축액을 얼마나 인출할 의향이 있는가 등을 물어봤다. 그리고 응답을 토대로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충성도 점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방탄소년단이 88.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이어 마이클 잭슨(76.8점), 엘튼 존(66.4점), 레이디 가가(63.3점), 테일러 스위프트(60.0점), 퀸(5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그레이디드포인트즈는 "방탄소년단 팬은 콘서트를 관람하고자 평균 2천40마일을 여행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BTS 팬은 멤버들은 콘서트에서 직접 보기 위해 평균 500달러를 가까이 낼 것으로 조사됐다.

업그레이디드포인트즈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2015년경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한 K팝 보이 밴드로, 전 세계를 아울러 충성도 높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레저, 미국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



▲ 그룹 트레저 콘셉트 포토. 사진=YG엔터테인먼트

그룹 트레저가 미국의 대형 음반사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

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저는 두 번째 정규 앨범 'REBOOT'으로 북미 음악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컬럼비아 레코드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음반 레이블로 비욘세, 아델, 해리 스타일스 등의 음반 유통을 맡아왔다.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등의 미국 유통 및 프로모션도 맡은 바 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최근 컬럼비아 레코드는 현지 트렌드에 걸맞은 미국 시장에 소개할 새로운 K팝 아티스트를 찾아왔고, 트레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봐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들은 현지에 특화된 트레저의 음반 유통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프로모션 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트레저는 아시아 시장에서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며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올해에는 17개 도시·40회 공연의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국과 양대 음악 시장으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데뷔 후 처음 투어를 진행한 K팝 아티스트 가운데 최다인 30만에 육박하는 관객을 끌어 모았다.

르세라핌·아이브·예지, NME '상반기 베스트 앨범' 선정

영국의 유명 음악 매체 NME가 선정한 '2023 상반기 베스트 앨범'에 그룹 르세라핌, 아이브, 한국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예지가 이름을 올렸다.

4일 NME가 발표한 '2023 상반기 베스트 앨범'에 따르면 르세라핌의 정규 1집 '언포기븐'(UNFORGIVEN)과 아이브의 '아이 해브 아이브'(I'VE IVE), 예지의 '위드 어 해머'(With A Hammer)가 선정됐다.

NME는 르세라핌의 '언포기븐'에 대해 "전작인 '피어리스'와 '안티프레자일'에서 르세라핌은 자신들이 지닌 힘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언포기븐'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이브의 '아이 해브 아이브'에 대해서는 "11개의 수록곡이 짜임새 있게 담겨 단 하나의 비트도 허투루 쓰지



▲ 그룹 르세라핌 콘셉트 포토. 사진=소스뮤직

않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DJ 겸 싱어송라이터 예지의 첫 정규음반인 '위드 어 해머'를 두고는 "팬데믹 기간 숙고한 끝에 그녀의 분노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천국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고찰의 순간을 그린 댄스곡"이라고 설명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30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Anthem
AARP, Brand new,
Central Health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학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